

보도일시	2023.3.28.(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	팀 장	송영호 (02-2610-3310)				
		담당자	심준연 (02-2610-3311)				

광명소방서, 2024. 3월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 추진

○ 생활 주변 정리를 통한 쓰레기 화재 예방 캠페인... 이번엔 사들물류단지!



광명소방서는 28일 사들물류단지 일대에서 광명시, 광명소방서, 광명의용소방대, 광명생활용품 협동조합과 합동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광명시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10명,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6명, 소방공무원 17명, 광명의용소방대 15명, 광명생활용품 협동조합 및 주민 18명 등 66여명이 참여하였고, 광명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광명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화재는 75건으로 전체화재(432건)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 발생이 61%로 다소 높은편이었다.

이번 캠페인은 ▲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에어컨 실외기 주변, 배전함 등 생활 주변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 제거 ▲ 공장내외 담배꽂초 및 쓰레기 등 정리·정돈을 통한 화재 발생 원인 최소화 등 화재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평재 소방서장은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경우 소방차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리 생활 주변의 정리·정돈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화재 안전관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